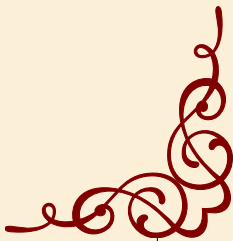


문서 스타일링 입문



시작하는 페이지



- 공주대학교 문서작성워크숍 2020의 발표자료 《Oblivoir와 TikZ로 해보는 나만의 서식》
- 독본 자료 `aeadt.pdf`와 `sampl.sty`
- 문서 스타일링의 원칙
 - *Simple, Minimal, and Elegant*
 - 이 디자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가?
 - 이 디자인 요소가 구현 가능한가?
 - 이미 누군가 해둔 것이 없는가?
- 문서 스타일링을 위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 *Read, read, read the Manual.*

- (1) 2020년 자료는 “chapter style”에 대하여 언급하는 부분에서 중단하여 있다. 그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도 좋다.
- (2) 이전에 이미 언급하였으나 충분치 못한 내용을 보충한다.
- (3) 방대한 분량의 독본(읽을거리) 자료를 제공하였다. 주로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위주가 될 것이며 가벼운 실습 자료를 취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실습

- (1) blank file을 준비하고 문서 작성에 필요한 것을 써넣어보자.

```
\documentclass[chapter]{oblivoir}
\title{문서작성워크숍 실습}
\author{이름}
\date{\today}
\begin{document}
\end{document}
```

- (2) 첫 페이지를 타이틀 페이지(*titlingpage*)로 `\maketitle`하라. 표지 만들기는 2020년 자료에서 상세히 논하고 있다.



```

• \setmainfont \setsansfont
• \setmainhangulfont \setsanshangulfont
• \setkomainfont \setkosansfont
• \setmathhangulfont
• \fontspec \hangulfontspec = \adhochangulfont
    
```

실습

- (1) 영어를 TeX Gyre Termes로, 한글을 Noto Serif KR로, 수식을 TeX Gyre Termes Math로, 한글 수식은 본문과 같게 설정하여라.
- (2) 폰트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적당한 텍스트를 식자하여 확인하여라.

적당한 텍스트

다음 항등식을 생각하자.

$\backslash [h_{i}(\mathbf {p},u)=x_{i}(\mathbf {p},e(\mathbf {p},u)) \backslash$
 여기서 $e(\mathbf {p},u)$ 는 지출함수이고 u 는 $\mathbf {p}$ 와 w 가 주어졌을 때 효용극대화로 얻는 효용이다. 이 식을 p_j 에 대하여 전미분하면

$$\backslash [\frac {\partial h_{i}(\mathbf {p},u)} {\partial p_{j}} = \frac {\partial x_{i}(\mathbf {p},e(\mathbf {p},u))}{\partial p_{j}} + \frac {\partial x_{i}(\mathbf {p},e(\mathbf {p},u))}{\partial e(\mathbf {p},u)} \cdot \frac {\partial e(\mathbf {p},u)} {\partial p_{j}}. \backslash]$$

셰퍼드의 렘마에 의하여

$$\frac {\partial e(\mathbf {p},u)} {\partial p_{j}} = h_{j}(\mathbf {p},u)$$

임을 이용하면

$$\backslash [h_{j}(\mathbf {p},u)=h_{j}(\mathbf {p},v(\mathbf {p},w))=x_{j}(\mathbf {p},w), \backslash]$$

이다. 여기서 $v(\mathbf {p},w)$ 는 간접효용함수. 이것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슬루츠키 방정식을 얻는다.



- `\textsf, \textbf, \textit`
- `\small, \large, \Large`
- `\newfontfamily, \newhangulfontfamily`
- `\fontspec`

실습

- (1) 앞서 설정한 폰트 세트를 본문에서 바꾸는 폰트 명령을 사용해보라.
- (2) 문장의 중간에 한두 단어를 특별한 효과를 위하여 잠깐 **다른 폰트**로 식자하려 한다. 이 폰트는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newhangulfontfamily` 명령을 활용하여 이 임시 폰트를 식자하는 명령을 만들어 보아라. (다른 폰트로 적당한 게 없으면 `UnYetgul.ttf`를 사용할 것)
- (3) `\newhangulfontfamily`에 의하는 것과, 문장의 중간에서 `\adhochangulfont`를 쓰는 것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토론해보자.

폰트 세트 패키지와 이탤릭 문제

- (1) KPR의 `hangulfontset` 패키지를 설치하면 기정의 폰트 세트를 몇 가지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패키지 문서를 읽어보자.
- (2) `\usepackage[baekmuk]{unfontsx}`는 백묵 글꼴을 사용하게 한다.
- (3) 한글은 이탤릭이 없다. 이탤릭 글꼴이 요구되면 한글일 때 기울임(사체)를 쓰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서 오늘날 그다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은 글꼴의 그래픽체를 이탤릭에 대응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므로 참고할 수 있다. 적절한 다른 이탤릭-상당의 폰트를 구상해보자.

`\textwidth = 426.0pt`

- `\usepapersize`

실습

- (1) A4 용지에 좌우 여백을 40mm, 상하 여백을 35mm 주고 `jiwonlipsum`의 `\jiwon` 명령을 내려보라.
- (2) `\makeoddhead`의 첫 인자에 `tikzpicture`를 이용하여 현재 페이지의 `typeblock`을 붉은 사각형으로 표시하여라. `tzplot`의 `\tzrectangle`을 이용하되, `current page.north west`에서 `\spinemargin`만큼 `xshift`, `\uppermargin`만큼 `yshift`, `current page.south east`에서 `\foremargin`만큼 `xshift`, `\lowermargin`만큼 `yshift`한 두 개의 노드를 지정해주면 된다. 반드시 `remember picture`, `overlay` 옵션을 주어야 한다.
- (3) 위의 드로잉이 제 위치대로 성공하려면 `oblivoir-misc`가 필요하다.

참고 코드

```
\coppagestyle{mytest}{plain}
\makeoddhead{mytest}{%
  \begin{tikzpicture}[remember picture, overlay]
    \tzcoor([xshift=\spinemargin,yshift=-\uppermargin]current page.north west)(NW)
    \tzcoor([xshift=-\foremargin,yshift=-\uppermargin]current page.north east)(NE)
    \tzcoor([xshift=-\foremargin,yshift=\lowermargin]current page.south east)(SE)
    \tzrectangle[red](NW)(SE)
    \tzto[red,<->]
      ([yshift=5pt]NW)
      {\footnotesize\cs{textwidth} $$ $ \the\textwidth}
      ([yshift=5pt]NE)
    \tzline[red](NW)([yshift=10pt]NW)
    \tzline[red](NE)([yshift=10pt]NE)
  \end{tikzpicture}
}{}{}
\thispagestyle{mytest}
```



- `\makechapterstyle`
- `\beforechapskip`, `\midchapskip`, `\afterchapskip`
- `\chapterheadstart`
- `\prechapternum`, `\printchapternum`, `\postchapternum`, `\chapternamenum`
- `\chapnamefont`, `\chaptitelfont`
- `\printchaptertitle[1]`
- `\afterchaptertitle`

- (1) 독본 자료 p.21, 그림 3-1을 보면서 이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자.
- (2) 주어진 chapter style design이 있다면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예제가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이를 잘 응용해본다.

실습

- (1) 아래 그림과 같은 간단한 chapterstyle을 설계해보자.
- (2) `\pre@chapter`와 `\post@chapter`를 바꿀 때에는 `\makeatletter`, `\makeatother`가 필요한데, sty 파일 내에서라면 그렇지 않다.
- (3) 이 chapter style의 이름을 mychap이라고 하고 `\makechapterstyle`하여라.

제 1 장 경제학도의 음주량 연구

1.1 이론적 배경

하수는 두 산 틈에서 나와 돌과 부딪쳐 싸우며,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머리와 우는 여울과 노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곱이쳐 돌면서, 우는 듯, 소리치는 듯, 바쁘게 호령하는 듯, 항상 장성을 깨뜨릴 형세가 있어, 전차 만승과 전기 만대나 전포 만가와 전고 만좌로써는 그 무너뜨리고 내뿜는 소리를 죽히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모래 위에 큰 돌은 홀연히 떨어져 섰고, 강 언덕에 버드나무는 어둑고 킁킁하여 물지킴과 하수 귀신이 다투어 나와서 사람을 놀리는 듯한데, 좌우의 교리가 붙들려고 애쓰는 듯싶었다. 혹은 마취기를 “여기는 예 경제디이므로 가끔이 경우가 오는 것이다” 하되마이는 그런 것이

장과 절 (계속)



- `\setsecheadstyle`
- `\setsechook`
- `\hangsecnum`

실습

(1) 앞 페이지의 섹션 타이틀 모양을 정의하여라.



- `\makepagestyle, \aliaspagestyle, \copypagestyle`
- `\makeoddhead, \makeevenhead`
- `\makeoddfoot, \makeevenfoot`
- `\makerunningwidth`
- `\makeheadrule, \makefootrule, \footruleheight, \footruleskip`
- `\makeheadposition`
- `\makepsmarks`
- `\createmark`

- (1) memoir는 면주를 설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크로를 정의해두고 있다.
- (2) 만약 면주를 TikZ (tzplot)로 다루려 한다면 rule이나 width 등의 복잡한 파라미터를 전부 tikz 환경 안에서 선과 node로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독본 자료가 강조하는 바이다. 그러나 memoir의 원래 설계를 이해해두는 것도 필요하므로 *Memoir Manual*, pp.111-114 부분을 잘 읽어두기 바란다.

실습

- (1) 다음 그림과 같은 간단한 페이지 스타일을 설계해보자. even은 odd와 동일하게 한다.
- (2) 이 스타일을 mypgsty라고 이름붙인다.

3

§ 2.1 섹션 제목 3

는 것이다. 요하가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히 밤에 건너 보지 않은 때문이니,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눈이 오로지 위험한 데만 보면서 무서움을 느껴 도리어 눈이
 이는 것은 거절하는 바이다. 심하게 뜨리는 소리가 의제는가. 기쁘거나 반죽에 푸은

참고 코드

```

\copypagestyle{mypgsty}{plain}
\makerunningwidth{mypgsty}{\dimexpr\textwidth+1cm\relax}
\makeheadrule{mypgsty}{\headwidth}{\normalrulethickness}
\makeoddhead{mypgsty}{\begin{tikzpicture}
  \tzrectangle*[gray](0,0)(2em,2em){\thepage}
  \tznode(1em,1em){\textcolor{white}{\thepage}}
\end{tikzpicture}}{\small\sffamily\rightmark\quad\thepage}
\makepsmarks{mypgsty}{
  \createmark{section}{right}{\shownumber}{\S\ }{\quad}
}
    
```


남은 주제들



- 독본에서, TOC, 정리류의 스타일에 대하여 더 다루고 있다.
- 관련 내용을 읽고 연습해보자.

숙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리포트 스타일을 제작한다.

- (1) 리포트에서 chapter를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나 일반적으로 필요 없을 것이다.
- (2) 용지와 여백을 설정한다.
- (3) 표제면(제목) 디자인에는 장식 글꼴을 써도 좋다.
- (4) 페이지 스타일을 꾸며보자. (여백에 꽃을 넣는 건?)
- (5) 섹션, 서브섹션의 스타일을 만들어보자.
- (6) 폰트를 잘 설정하여 보자.